

여성임을 긍정하는
즐거은 반란이 시작된다.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김신 현경 · 최전 승민 선거운동본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지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뿐이다.’
숨막힐 듯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쩌면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고,
주어지는 일상의 굴레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절망...
여기에서 우리는 틈새를 찾아 파열구를 내고자 한다.

‘제한된 가능성을 넘어, 절망적인 불가능성을 넘어’

여/성/주/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안한다.
여성으로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즐거운 반란의 시작이다 !

제10대 총여학생회 정후보 김신 현경(정외 3)

75년 서울에서 맏딸로 태어나다. 맏딸이라는 위치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하나씩 있지만 아빠와 엄마는 아주 확고하게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이 키운다'는 나름의 철학을 고수하셨으므로 어린 시절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이후 대학 입학 전까지 모범적이면서도 개기는 이중생활의 연속.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됨. 도대체 누가 여고시절이 아름답다고 했나? 나의 여고시절은 권위적인 교장선생과 '넌 못생겼지만 공부는 잘 해서 다행이다'라는 소리를 서슴없이 해대는 윤리 선생과의 싸움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교지의 내 글은 늘 잘렸고 신문 독자투고 때문에 교무실에 불려가야 했던 그 시절. 그 때의 세상에 대한 나의 오해는 두 가지. 첫째는 '대학 가면 낫겠지'와 둘째는 '제대로 된 남자라면 여

자의 외모 따위는 따지지 않을 거야'.

94년 노래패와 학회에 활동하다. 그러나 늘 불행한 남자 선배와 동기들의 관계. 그들은 '여자다

운 여자'와 '당찬 여자'를 구분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95년 여성운동의 이론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그러나 아직 이론적인 수준. 자기 일만 챙긴다고 보였던 여자 선배들이나 동기들과의 만남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다.

96년 휴학. 거리에서 멋대로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이 자득한, 마음대로 횡단 보도를 지나다닐 수 있는 나라에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되뇌었다. 나는, 그저 가벼워지고 싶었다. 평생 이방인처럼 살고 싶다.....

97년 돌아오다. 사람들을 만나다. 생각하다. 많이 웃고 많이 울다. 결심하다. 아마도, 이방인으로서의 삶, 당분간은 유보하리라고. 내게 가능한 희망을 유보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오늘 나 이 약력을 쓰다.



제10대 총여학생회장 부후보 최전 승민(경영 4)

76년 11살 차이나는 언니와 8살 차이나는 오빠 밑에 막내로 태어난다. 막내라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너희 언니 오빠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구박을 많이 들으며 자란다.

94년 아무 생각도 없던 고등학교 시절을 마치고 어머니 아버지의 우려 속에서 여학생수가 적다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다. 그러나 웬지 모르는 실망과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고 싶던 미술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화우회'를 찾아간다. 바로 이것이야'라는

.....

년 도파적인 생각 갖기 시작한다. 이 '물질주의적 자본주의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가 살아야겠다는 '환상'을 품는다.

'11번째 테제'를 접하고 그것에 매료된다. 사회가 마음에 들

지 않는다면 그 사회를 바꿔볼수도 있다는 생각.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총학생회 성정치국일을 선배들과 함께 하게 된다. 그리고 말했던 성정치문화제를 치워내기도 한다.

96년 성정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리고 작지만 무엇인가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97년 여성자치연합이 구성된다. 여성운동을 고민하고 하는 모임들이 학교에 이렇게 많다는(여전히 부족하진 않겠지만)것에 감동을 하며 진정한 '여성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총여학생회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 비판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야 비로소 '실천'이 된다는 생각,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총여학생회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제10대 총여학생회 선거 부후보를 결심하였다.



여성을 긍정하는

즐거운 반란이
시작된다.

총 론

- 여성의 일상, 너무도 정치적인

공 약

- 이렇게 하겠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며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진 단

- 성폭력에 대한 일설

-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를 만났을 때

쉬어가는 글

- 엄마에대한 단상

기획글 : 여성주의 공동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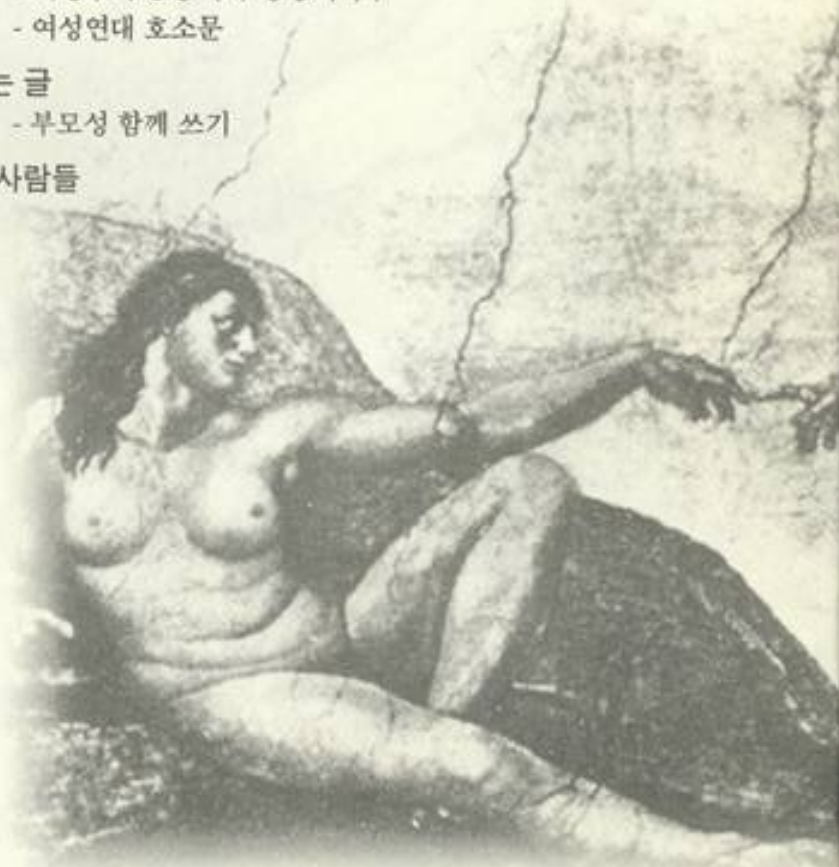
- 여성주의 공동체가 상상이라구

- 여성연대 호소문

쉬어가는 글

- 부모성 함께 쓰기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여자를 만들었다.」 1970
앤 그리팔코니의 오리지널 디자인에서 인용



여성의 일상, 너무도 정치적인

'총여학생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좀 더 특별하게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학생회 선거에 덤으로 얹혀지는 한장의 종이 이상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혹은 지닐 수 있을까? 더 트집 잡아 보자면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다.

하나.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다

지금, 여기서, 일상을 전디어 낸다는 것은 삶의 무게들을 매순간순간마다 짊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동전 하나 집어넣고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는 커피 자판기의 커피처럼 가벼운 듯한 일상은 사실 얼마나 쓰디쓴 것인지. 또한 인스턴트 커피 맛처럼, 친구들과의 수다와 학점 걱정과 남자 친구와의 연애 관계, 이런 저런 모임들에서의 일들과 인간 관계들... 그 분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저 사생활일 뿐인 일상이 쓰디 쓰다고? 사실, 그렇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즐거기만 여자 친구들과의 수다가 이런 저런 연유로 알게 된 남자 선배, 친구들과의 술자리보다 다소 '덜'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은 화장 얘기하고 남자 친구 얘기에 남들 홍보기 정신 없다고 그런다. 글썸다... 학점? 그래...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학점이 좋아야 한가지? 여자들은 학점이 좋아도 취직하기 힘들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는지 시험 땀 노트 빌려가면서 '여자들은 자기 것만 잘 챙긴다'고 뒤에서 씩덕거리고. 남자 친구! 이 힘든 세상에 나의 반쪽을 얻었다는 충만함에 들뜨기도 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이런 일상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이 조금도 겹쳐지지 않는 이가 과연 우

리 중에 있을까? 그저 '삶이 어디 만만하겠나'라고 좋게 좋게 넘기기에 너무도 석연치 않다. 단지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갑갑함을 느껴야 한다면.

우리에게 정치란 너무나 먼 이야기 같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엄한 얼굴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솔직한 느낌은 나랑 관계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야기가 한참 뒀 것 같기도 하다. 그게 내 갑갑한 일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케이트 밀레트가 그녀의 책 '성의 정치학'에서 쓴 말을 옮기는 것은 잘난 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도 절절하여 가슴을 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녀의 친밀한 관계의 장면에서부터 정치적 관계라고 하는 보다 큰 문맥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 있다. '성의 정치'라는 용어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관계를 정치적 입장에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가피한 질문을 답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하는 정치는 회의, 의장, 또는 정당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협의의 배타적 세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라는 용어는 권력 구조적인 제관계, 즉 한 무리와 인간이 다른 무리와 인간을 지배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나는, 우리는, 한무리의 인간인 '여성'인 것이다. 적어도 현실은 그렇다. 어느 한 인간이 '남성'인가 혹은 '여성'인가에 따라 이 복잡 다단한 사회에서 위치 지위집이 달라진다. 우리는 추상적 층위에서 '인간' 일반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보다 낮은 차원, 즉 일상적 수준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이거나 '남성'이다. 우리가 정치적 전략을 생각할 때 이것은 주체를 구성하고 담론을 가로지르는(즉, 여성/남성을 성적 주체로서 사회화하고 그들의 욕망과 욕망의 충족 방식을 규정하는) 권력의 작용들이 정치적 논쟁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상이 전쟁터란 말은 이런 의미다. 일상은, 수많은 의미망들이 교차하면서 상충되는 기호와 담론들이 각축, 경합, 협상하는 장이며 서로 다른 물적기반들이 드러나고 충돌하는 장이기도 하며 계급, 인종, 성적 선호, 성별등 다양한 변수와 주체들이 맞물려 구성되고 생산되는 장이라는 것이다.



둘. 일상에 구멍내기 총여학생회 선거

대학을 다니는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정치적인데 유 일하게 들어 본 정치적인 듯한 기구는 '총여학생회'밖에 없는 듯 하다.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낯설다. 일단은 '정치'라는 말이 주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러하고 다르게는 '총학생회'가 멀게 느껴지는 느낌과 비슷하다. 아니,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총학생회'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 연세대학교 학생 대표이니만큼 하는 일도 많고 자보다 자주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엔 총여학생회 선거가 치뤄지지도 않았다. 여기서 또 한 번 시비를 걸어볼까? 왜 총여학생회 선거가 작년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사실 그 이전의 총여학생회 선거란 게 정말 '덤'으로 얹혀지는 종이 한 장 그 이상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런 지루한 반복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일상처럼!) '좀 아닌데..'라고 시비 거는 새로운 집단들이 생겨 났었다. 이들이 선거에 낸 구멍은 예상 외로 컸다. 여성 문제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전략으로 동시에 연대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한 주장이 사실 우리들의 뿌리임을 감추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일상이 전쟁터'라고 선언한 바에야 아군/적 갈라놓고 좀 더 비장하게 싸워야 마땅하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단순한 대결 구도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일상 속에서 맞물려 충돌하는 것들이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종다양한 갑갑함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고 풀려고 노력해 온 것이다.

자, 그런데... 다시 '총여학생회'라니. 이름도 비장한 '총여학생회'를 다시 고민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그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상이며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제안일 것이다."

여기에서 지난 3월 보컬 선거의 해프닝들을 짚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겨진다. 당시 여성문제의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던 '여성자치연합'은 그 다양한 전략의 동시 연대를 위해 '총여학생회'라는 기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회 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문제제기 속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자치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풀 수 있으리라는 데 일단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했다.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던 중 보컬 선거에 출마한 'HOPE' 팀의 정책과 공약들은 학내에서의 이런 새로운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무지와 여성운동 전반에 대한 오해와 폄하로 일관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당시 아직은 'BEYON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회대 여학우 모임에서 자보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유권자 운동'의 측면에서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선거 파괴 운동'이라는 무수한 비난들... 상식적으로 선거를 통해 우리의 뜻을 대변해 줄 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선거에 개입할 권리 또한 있는 것이다. 이 '반대표 운동'은 학내 여성 운동의 지형들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이와는 관계없이 어이없는 실수로 'HOPE' 팀은 후보자 박탈 조치를 당했다. 선거에 대한, 학생회에 대한 문제제기에 관한 많은 비난을 접하면서 '권력의 위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과연 시기상조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권력의 위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다. 우리는 '권력을 위임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그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허상이며 '일상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라는 작은(?) 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는 제도적,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 질서들의 문제의식은 묻혀버릴 수도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 '연세대학생' 에겐 '총학생회'가 있다. 그러나 이 '총학생회'



라고 하는 구조가 기반한 논리 속에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상, 특히 여성의 일상이 그토록 비정치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읽히는 공/사의 논리 속에서 공적이고 전통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보이는 '총학생회' 구조에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단일한 주체일 뿐이다. '총여학생회'가 더 나으리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존재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우리의 일상(단호하게도, 그렇다!)을 기반으로 하는 총여학생회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될 경우를 기대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만인의 자유, 만인의 평등을 외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구를. 때문에 총여학생회가 여학생들의 투표로 세워진다는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총여학생회 선거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그 지겨운 일상에 구멍을 내는 일탈의 축제로 재구성되었으면 한다.

셋.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가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하고 풀어 나가려고 하는 자치 집단들을 보장하는 일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 모여봐라'식의 탈정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 운동 특유의 정치성인 것이다. 한 사람의 여성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또 얼마나 다른 각각의 개인들인가. 우리들의 다양성이 가부장제 하에서 멋대로 선 그어지고 유형화 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저 넘기지 않으려

1. 누가 진짜 여성운동을 하는지는 식의 판가름기가 아니다. 우리는 당시 그들에게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논쟁하고 제의하였으나 그들은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이 공개 유세때 자유 발언대를 요청하는 학우들을 뒤로 한 채 사라져 버린 해프닝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여성주의라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들 특유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

한다. 다른 느낌의 개인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을 표현하고 조절해 가며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것.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자치 질서들 위에 서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학생회' 구조 안에 있다는, 다른 자치 질서들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이 있다. 바로 학교와의 통로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와의 통로에서 그러하다. 지금은 단일한 이 통로를 일단은 '총여학생회'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이름하여 '여성주의 권력'의 확산이다. '여성주의'라는 말을 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여성들 특유의 관계 맺는 방식이다.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중심이 아닌,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지 않는, 느슨한 중심과 주변의 연대. 이쯤 되면 모두가 평등한 이상주의 사회를 그리는 거냐는 힐난이 터져 나올 법하다. 그런 이상주의 사회를 우리는 도그마적으로 상정해 놓지는 않는다. 그저 상상해 보는 것 뿐이다. 이러한 상상이 지금 실제로 실험되고 있는데도 그 가능성을 보지 않으려 함은 어떤 의미에서 운동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인 상상력을 소진해 버렸다는 의미는 아닐지.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광고 카피만은 아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살이 보태지고 피가 더해져 마침내 숨쉬는 생명력을 갖게 될 상상력을 위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을 바꾸겠다'는 용기일 것이다.

2. '물뿔 모임'에 대한 글을 참조하세요.





1. 여성주의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1) 여성주의적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현재 10여개에 이르는 학내 여성단체들과 미래의 여성단체들을 공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여성들의 모임은 전국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혼자입니다. 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외부 여성단체들과 타대학 여성단체들과의 공식적 통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 여성주의 정보의 DATA BASE를 만들겠습니다.

- 여성관련 서적을 수집, 정리하여 여성주의 서고를 만들겠습니다.
- 정신대, 성폭력, 여성문화(공연), 취업등의 정보 BANK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2. 여성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1) 여성의 일상 문화를 일구겠습니다.

- 여성문화 기획단을 구성하여 여성주의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놀이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을 '여성주의 Cafe(가칭)'로 만들어 휴식의 공간뿐 아니라 일상적 영화상영, 전시, 공연,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성도 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 여학생이 수영장과 대강당 앞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즐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을 무력하게 만든 교육과, 남성의 시선으로부터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수영장과 체육육성실부터 여성만의 사용시간을 지정하겠습니다.

3) 여성임을 긍정하는 축제의 자리

- 여학생 주관을 여성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학내의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자치단체, 여학생처, 여성학관련 수업등과 함께 여성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재의 형법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점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2)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사건 발생시 제정된 학칙을 운용하고 법자문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 치유 상담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등, 학내 성폭력 전반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3)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 현재 남녀 공동으로 개설된 호신술 강좌는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성폭력 대처방안을 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교양강좌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런
게
하
겠
습
니
다



4. 여성이 사회를 살아가는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성을 공론화하겠습니다.

- 남녀간의 성적 차이를 고민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여성의 취업현실에 기반을 둔 취업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소수 여성의 성공사례 위주의 형식적 취업간담회를 지양하고, 실제 취업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취업간담회를 준비하겠습니다.





5. '연세여성'을 독자적 여성언론으로 독립시키겠습니다.

- 이제까지 총여학생회 집행부의 기관지였던 '연세여성'을 여학우 개인들, 학내 여성 소모임들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언론으로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 총여학생회 선거에 영향받지 않는 언론, 춘추나 연세지처럼 독립적 위상과 내용을 갖는 언론을 위해 독자적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7년 여성의 날적이

3월 × × 일, 섬김과 반대

세상에, 좋은 책 100권 읽기 운동이라니. 교육부에서 나왔나? 그래도 그렇지. 언니들, 여기 대학교 맞나요? 저 사람들, 총여학생회 후보 맞아요?

섬기네 어찌네 하는 말만 안했어도 이런 말 안했다. 2만 연세를 섬기는 총여학생회라구? 호호호. 2만 연세가 총여학생회 지아비라도 되나, 섬기게? 설사 지아비인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내 상상력이 형편없긴 하다. 난 예능 쪽엔 전혀 소질이 없다. 그래서인지 섬김이란 말을 들으며 난 '지아비'밖에 떠올리지 못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 지아비, 그 권위주의의 얼굴.

난 우리 아빠 퇴근만 하면 텔레비전 보다가도 문 열고 내방에 들어간다. 간혹은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길래 저러실까 이해해보기도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특히나 손님만 한들 오면 끝장이다. 밥 좀 나와, 술 먼저 가져오라니까, 여태 뭐하는 거야, 여자가 꾸물꾸물, 짜개가 왜 이렇게 짜, 음식이라곤 제대로 하는 걸 못봤어, 과일 좀 나와, 그런 것도 말 안하면 못하나, 술안주가 있어야 될 거 아냐, 가진 뭘 벌써 가, 자고 내일 가면 되지, 당신이 잘 못하니깐 벌써 간다는 거 아냐, 언제 열두신데...

난 명절이 싫다. 명절 끝이면 기어코 싸움판이 벌어지고야 민다. 그 싸움은 대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그런 어느날 엄마는 나더러 자기처럼 살지 말라며 우셨다. 내가 아는 섬김은 그런 것이다. 섬기라니, 섬기는 총여학생회라

니, 내가 무슨 도인이란도 되는 줄로 아는가보다. 아니면 그들이 도인이던가.

그들 왁, 그건 무슨 종교적 섬김이란단.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후보들의 리플렛 표현대로, 그들은 '진짜 공주'라서, 나처럼 '가짜 공주'도 뵈도 못 되는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쓰는지도 모르겠다.(자기들이 공주면 우리는 농노쯤 되는 듯 한데, 공주가 백성을 섬긴다는 건 또 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언어는 사회적인 거라는, 그 역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전통적 논리가 기독교적이라기보다 유교적이므로, 섬김이라는 표현에 담긴 사회적 함의를 몇몇 개인이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있었다.

언니는 섬김이라는 표현에 담긴 그 후보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말했다. 그리고 반대표를 찍겠다고 했다. 내가 언니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왜 후보 안냈어요, 그럼 내가 찍었을텐데 했더니, 학생회가 어떻게 시작하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골치아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난 이해를 포기하고 듣는 척만 했다(언니, 정말정말 미안해요~).

언니 말이 아니더라도 난 기필코 투표소에 가서 반대표를 찍기로 작정했다. 원래는 그냥 투표 안하려고 했는데, 맘이 바뀌었다. 난 그들이 싫어졌다.

올 3월에 실시된 제 10 대 총학생회 선거는 결국 선관위의 3회 경고로 후보가 자격이 박탈되어 무산되었다. 우리는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반대표운동'을 지지했거나 주도했다. 우리는 그들의 철학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니 철학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으므로 그들의 자질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해야겠다. 연대의 여성은 '진짜공주'라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엘리트주의와 도무지 여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무분별한(그래서 때로는 반여성적인) 종교적 수사들, 조야한 정책과 공약을 앞에 놓고서 우리는 한편으로 망연자실했고, 한편으로 분노했다. 그렇다면 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다른 글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 해야하겠다.

우리는 당시 학생회의 형식과 절차(따라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문에 봉착해 있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선거는 운동권의 관성과 하등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의례적 절차 이상이 될 수 없었다. 우리는 관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섬김'이 등장했고, 우리들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방어를 행했다. 그들의 우리-여성주의적 입장에 대한 거의 유일한 비판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우리-여성주의는 남성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남녀간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것.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었다.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한 확연한 갈라섬." 각자의 처지와 위치, 상대적 관계를 확연히 할 때 더 큰 합일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비유이다. 물론 남성은 투쟁의 대상도 아니지만 합일의 대상도 아니다. 특히나 남성우월주의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정치, 사회, 문화가 온존하고 여성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 그 한켠에서 난무하는 이 사회에서는 합일은 커녕 조화를 말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오로지 그 둘의 평화로운 '공존'을 원할 따름이다. 우리는 차라리 "온전한 둘이 되기 위한 확연한 갈라섬"을 주장할 것이다.

5월 ××일, 저는 불결합니다.

저는 불결합니다. 오늘 그와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그와는 이미 다섯 번째 헤어짐이지만 오늘 그는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고, 올 힘도 남지 않은 나는, 그 막막한 시간들이 혹시 비명이라도 지를까봐 눈을 붙박고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헤어짐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봅니다.

저는 불결합니다. 그를 만난지 석달 쯤 지난 날, 그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많이 취했었고, 나는 그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저분한 기억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랑한다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뒤로도 여러번 여관엘 갔습니다. 청수장, 미림장, 도원여관, 근웅장, 이름도 일일이 떠올릴 수 없는, 그와 나의 타액이 묻어있는 여관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절대로, 내가 죽으므로써 나의 의식을 지우지 않는 한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을 절망이라고 할까요? 저는 불결합니다.

그와의 성관계가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만족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여하간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한번은,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그의 새로운 '여자'에 대해 말하기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관계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관성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가 만들어 내는 거리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이 그와의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때 그는, 살다보니 별일도 다 본다는 눈빛으로 한참을 보다가 청수장, 미림장, 도원여관, 근웅장, 그런 중의 하나로 데려갔고, 마구잡이로 입을 치룬뒤, 짐이라도 던 것처럼 돌아누워 코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니 불만족스럽다는 건 조금은 틀린 말인지도 모르지요.

그의 '여자'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를 왜 만나자고 했는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슬퍼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꺾꺾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무작정 내려버렸지요. 환승통로가 북에서 났다는 땅굴처럼 뻗어 있었고요, 그 입구에는 뱅글뱅글 맴도는 것이 일인 공룡 장난감들이 수십개씩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결합니다. 오늘 저 학생회관 앞에 놓여있는 글을 보고서야 저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참 아둔한가 봅니다. 이제서... 너무 늦지요. 어디 새삼스런 말도 아닌데... 나는 대학에 대한, 특히 우리학교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겁니다. 적어도 이곳은 그렇지 않겠지 하는 환상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역시 이 시대의 타락한 성문화의 표본이었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순결하면 된다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언젠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어쩔 수 없는 성관계를 가지게되는, 그래서 나의 불결함이 폭로되어지는, 그것으로 나의 모든 것이 판단되고, 그때까지의 모든 관계가 불가항력적으로 파괴될 그런 순간을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와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가 그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진 반년간이나 그와 성관계를 가져온 파렴치한이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갔습니다. 저는 영원히 불결한 여자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만 할까요?

올해 5월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이미 우리는 총학생회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분노케할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우리는 분노하기에도 지쳐 있었다). 대동제 개막식 다음 행사로 '순결 서약식'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을 개탄하면서 자못 자신들이 무슨 투사라도 되는양 비장하기까지 했던 그 문구들을 기억하면 지금도 실소가 터진다. 보수주의의 투사가 될테면, 되라. 'Happy Together'를 상영금지시키고, 여성 성기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하트 따위를 갖다붙

여아만 직성이 풀리는,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외치며 신촌거리를 누비거나, 95년 '성정치문화제'에서처럼 맘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부수기까지하는, 그들 스스로 비난해 마지 않는 운동권의 '폭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폭력과 테러의 전위투사가, 되려면 되라(실제로 우리는 95년 '성정치 문화제' 당시 파괴행위를 주도했던 '카타콤'이라는 기독교 모임의 극성적 일원이 35대 총학생회의 집행부원임을 확인한 바 있다). 도대체가, 강력한 기독교 전통의 서구 어느나라에서도 감히 말해줄 수 없는 '순결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 부여'를, 어떻게 이 나라에서, 엄밀히 말해 '국민 일부의 종교'일 뿐인 기독교의 교리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가장 배타적인 종교인 기독교가 순식간에 유교적 순결 이데올로기와 결합할 수 있는가. 그 행동이, 순결에의 강요가, 얼마나 많은 한국사회의 여성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인지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그것을 남성에게 복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의 하나임을 절대 알 수 없다. 남자, 여자 모두 순결하면 될 꺼 아니냐고? 다시한번 말한다. '사회적 의미'를 당신들의 '개인적 의지'로 환원하지 말라!

9월 ××일, 세상의 폭력, 사람의 폭력

저 인간이 들어온지도 벌써 30분이 다 되겠다. 나갈 듯 나갈 듯 끈덕지게 저분한 말만 쏟아놓고 있다. 내 나이가 몇 인 줄 아느냐는 말만 벌써 스무번쯤 했을 거다.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서 나이 많은 걸 자랑하는 걸까.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A에게 대놓고 반말이고, 가끔은 욕설까지 튀어나온다. 참기 힘들다. A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참고 있는 것 같다. 방금까지만 해도 뒤따라오면서 "한 대 패버린다"는 헐박까지 했단다. 인간이라고 말해주기도 아깝다.

A가 말하는 걸로 추측하건데, 그 인간은 A와 같은 과에 다닌다. 일전에 무슨 수업에선가 그 인간이 발표를 하는데 A가 그 논지에 반박하는 말을 했다고 한

다. A는 기억 안난다고 하는데, 전후사정을 보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다. 그 한참 뒤에 그 인간이 A에게 아는 척을 했는데, A가 잘 모르겠다고 했고, 그 뒤로 A만 보면 싸가지가 없다는 등, 선배한테 인사도 안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건다는 거다. 우리 앞에서도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 오죽 했을까 싶다. 방금 전에도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A가 무시하자 뒤따라오면서 욕설과 폭언을 해댄 것이다. A는 무서워서 종종걸음으로 이곳까지 왔고, 그는 끝까지 뒤따라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A가 우리들 덕분인지 조목조목 따지고 든다. 그 인간은 말이 막힐 때마다 '싸가지' 얘기로 답한다.

요 얼마 전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찾아와서 대뜸 이것저것 여성학 자료들을 열거하더니, 자기가 지금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 자료들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모두 어이가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건 드리겠지만 대개는 본인이 구하셔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왈 그 자료들만 주면 자기가 "여성해방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여성해방이 무슨 개떡이나 싶었다. 그들에게 여성해방은 '시켜주는' 거였다.

한 선배의 강압적인 만류로 그 인간은 씩씩거리며 물러갔다. A는 학교를 올라오면서 내내 아무도 없으면 어쩔나하고 걱정했단다. 만약에 정말 아무도 없었더라면 A는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A는 흥분해서 가슴을 뽐뽐거리고 있다. 다른 애들에게 듣고 보니 그 인간, 이러는 게 처음이 아니란다. 어떤 애는 무서워서 정말로 볼 때마다 꺾듯이 인사를 했더라. 그랬더니 아는 체도 안하고 지나가버리더라는 것이다.

밖에서는 어디 그것도 응원가라고 "Macho, Macho Man"하는 응원가가 난리법석이다. 남성적인, 너무나도 남성적인 ... 아제 신물이 난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개같은 날이다.

먼저 혹시나 읽고 있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차마 인간이 가련해서 '그 인간'이라고 점잖게 표현해준 그)에게 분명히 경고해 두겠다. 당신이 우리들의 선배(그를 내보냈던)에게 행한 '만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익히 들었다. "목을 비틀어 버린다", "죽여버린다"고 당신은 잘도 지껄었다. 우리는 당신이, 죽이는 건 고사하고 손도 한대 못낼 위인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협박은 가소로울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더 이상 당신의 행동을 묵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의 행동을 심각한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습적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우리 여성 개인들이 '육체적'으로 약하므로, 또 '사회적'으로도 약자이므로 당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여태껏 우리들, 여성들을 능욕하거나 희롱하거나 괴롭혔다. 물론 우리들 각각은 당신보다 '육체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집단적 '여성'은 다르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권력집단화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혐오한다. 그러나 단 하나, 당신과 같은 권위주의적 남성의 언어적·물리적·성적 폭력에 대항해서는 우리는 절대 '집단'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속에서 사회의 권력중 그 어느것도 여성의 편이 아님을,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뿐임을 뼈저리게 느껴왔다. 당신이 그 첫 상대가 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다시 한 번만 더 우리들, 여성들을 괴롭히라.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이 적어도 이 연세교정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당신의 협박은 공갈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다. 그리고 아울러 이 경고가 현재의 당신뿐 아니라 누구일지 모를 '미래의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임을 밝힌다. 여성이여, 이제, 싫으면 싫다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 말하고, 참을 수 없다면 참지 말자. 그것이 우리의 바램이다.

10월 ××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난 운동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적어도 여성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다지 신뢰할만 하지 않다.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여성운동을 분류시킬 뿐이지 그들은 스스로의 어떤 능동적 의사도 없음을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성운동을 이른바 '전체운동'의 장신구 정도로 생각한다. 간혹 '다양한 사회적 적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말의 환원불가능성을, 그 불가능성을 전제로한 다양성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병통치약처럼 다양성을 되뇌이지만 그들에게 다양성은 고정된 중심으로의 끊임없는 구심력으로부터는 이해되지 않는다. 사과를 초속 11km이상의 속도로 던지지 않는 한 사과는 땅에 떨어진다. 운동권에게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없다. 그저 사과를 휘한 번 던져볼 뿐이다. 사과는 떨어져서 원래보다도 극심하게 파열된다.

그렇지만 비벌 언덕은 여전히 운동권밖에 없어 보였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나마 그들 뿐이었고, 대학사회의 정치적 집단이라 해봐도 그들이 전부다. 그들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

어제, 기가막힌 소리를 들었다.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곤 하던 어느 정치조직의 간부쯤 되는 애가 있었더라. 그가 한 여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무슨 운동에 대한 논쟁을 하던 끝에, 새벽무렵 집에 가겠다고 일어서는 그녀를 붙잡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던 모양이다. 그녀에게 폐가 될까봐 구체적인 이야기를 줄 수 없지만, 그는 술취한 자의 (우리 사회에서는 지극히 관용적인, 그러나 그 대상이 여성일 경우 맨 정신에서의 폭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언을 그녀에게 했다고 한다. 그녀는 겁에 질리고 두려운 나머지 울음을 터트렸단다. 더 한심한 것은 그런 짓이 일어나는 동안 꿈쩍도 않고 있던 그의 동료가 울며 가는 그녀에게 와서 "니가 이해해라."하고 돌아가더라.

그런 자들에게 여성은 무엇이고, 여성운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특정 정치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중의 하나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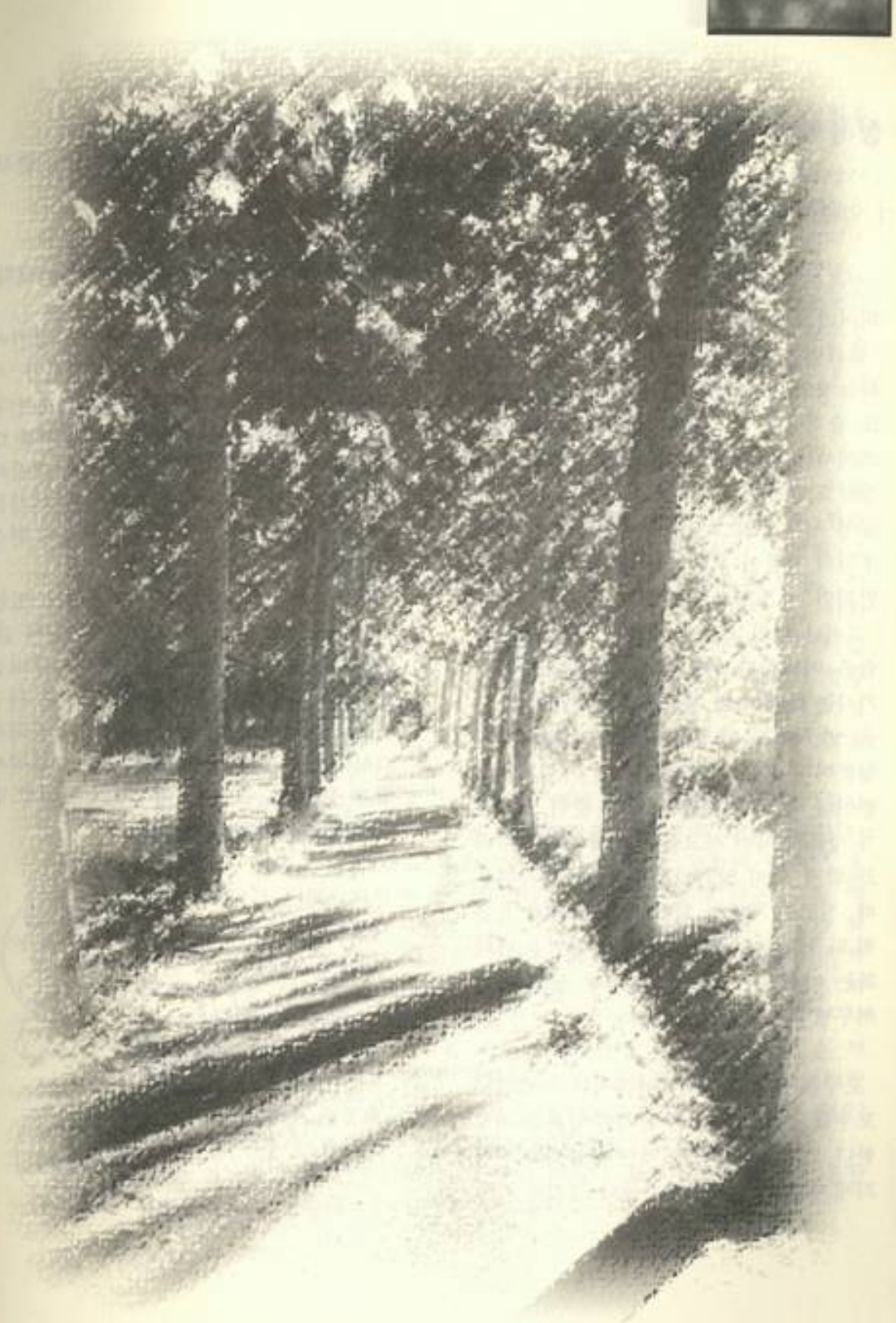
운동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굳이 숨기지 않았고, 다른 정치조직이라고 다를 것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혼자다.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어딘가에 우리의 동지가 있을 것이라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의 대가가 이렇게 비참한 것일 줄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돌고 돌아서 우리는 원점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제외하고서 그 어떤 가능성도 남겨놓지 않은 셈이다.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여성의 질서는 세워진 적이 없으므로, 우리가 세울 모든 질서는 새로운 질서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성폭력에 대한 일설

1. 일상의 성폭력, 성폭력의 일상

성폭력, 성희롱, 강간.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버린 용어들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일상의 대화들에서 이제 위의 단어들은 그리 낯설지도 충격적이지도 않다. 공중과 방송의 뉴스에서는 성폭력 사건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앞서거나 뒤서거나하면서 사회 고발성 시사 프로그램들에서는 “충격 보도, 우리의 딸들이 위험하다”류의 기사가 ‘때만되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접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뉴스로 보도되는 성폭력 기사는 내게는 내 가족에게는 발생되지 않을, 먼 너무도 먼 낯선 세상의 낯선 이야기 일뿐이며 혹은 그저 선정적인 가십거리일 뿐이다. 한국이 성폭력 발생 순위 2위 국가-성폭력 사건 신고율이 실제 발생건수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신고만 제대로 되어도 2위국가를 유유히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사실 또한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다.

모두들 성폭력을 떠들어대지만, 우습게도 모두들 성폭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거부한다. 성폭력을 떠들어대는 자들의 시선은 가해자 혹은 예비가해자들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성폭력을 음란한 시선으로 즐길 뿐이다.

2. 결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학

진보의 공간, 자유의 공간, 낭만의 공간이라는 대학의 규정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사회가 가부장적인 만큼 대학 또한 그러하다. 아니, 실은 대학은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인자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니 어쩌면 대학은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의 박물관이라는 것이 현실 이리라.

가부장제 질서를 철저히 옹호하고 있는 대학에서 소수의 여학생들은 그녀들의 삶, 일상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도 허구적인 대학공간의 안전성을 여전히 신뢰하고 싶어 하는 학우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대생 ‘나 여성’양의 하루를 소개해 볼까 한다.



내 이름은 ‘나 여성’, Y대 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성별은 female.

나의 하루는 발딛을 틈 없는 지하철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도 역시 움푹 달짝할 수 없는 만원 지하철이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은 내등뒤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뜨겁고 더러운 입김을 마구 뿜어대며 자신의 성기를 무기처럼 들이치는 개자식은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개자식들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인간들인데, 이런 부류들을 만난 날이면, 으흐흐흐... 그날은 정말 하루를 온전히 망쳐버리는 것이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일이 싫어서 지하철이 한산한 새벽에 등고 한다고 한다. 짜증이 물밀 듯 밀려온다. 왜나는 이런 일에서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가?

어찌어찌하여 도착한 강의실, 열심히 공부해보겠다는 다짐으로 앞자리에 앉아본다. 하지만 이때 들려오는 교수님의 말씀 “제군들, 가을이라 날씨도 좋고 한데 연애도 못하고 강의실에 박혀 있으려니까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돼,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시만 붙어봐 그러면 잘 빠진 여자들이 줄을 설테니까.” 또 다시 밀려오는 짜증. 이 강의실에는 남학생들만 있나? 도대체 왜들 저러시는 것일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정말 가시 방석이다.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듯한 불편함. 하긴 어떤 교수님들은 노골적으로 여자가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냐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하시니, 이런 발언 쪽은 애교로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여자들은 제자로도 생각하지 않으니,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닐까?

찔찔한 기분으로 강의실을 나섰는데 ‘예비 강간범’을 만났다. -1학년 신입생 오리때, 나이가 많은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그 자식 왈 “니가 지금은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지만 내가 너를 딱 강간해 버리면 오빠오빠하다가 아빠아빠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한 후에 나는 그를 예비 강간범이라고 부르며 피하고 있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 주위의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고 그자식을 피하게 했지만, 그가 법대를 활개치고 다니는 생각을 하면 두려워진다. 언제 무슨짓을 할놈인지 모르는데

하긴 그런 놈들이 한 두놈도 아닌데, 주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저 남학생들이 어쩌면 모두 예비 강간범들일지도 모른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품평회를 일삼고, 음담 패설을 늘어놓고 매매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들이 그 예비 강간범과 다르게 무엇인가?

사실 공개화 되지 않을 뿐이지 뒷풀이 자리나 모꼬지에서 흔하디 흔한 성희롱 한 번 안당해본 여학생들이 있을라고...

앞의 글을 읽어본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로 당신의 이야기같지 않습니까?

교수와 남학생들에 의한 언어폭력, 가부장적권위와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권력을 등에 업은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남자 선배에 의한 성폭력 동기간의 성폭력, 혹은 후배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강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학은 결코 성폭력의 안전 지대가 아님을 밝히고 싶다.

3. 대학은 정치적인 곳이다.

·대학내 성폭력은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은 성폭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알게 또는 모르게 피해자의 학점이나 학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포기를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생활을 포기하게 만든다. 학교 생활의 포기는 결국 대학에 온 목적인 자기계발이나 사회 진출의 기회를 막아버려 자신의 주체적 삶을 포기하게 까지 한다.

특히 교수와 제자간의 성폭력 사건은 교수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라는 관계의 특수성이 학생 자신의 인생을 걸고 문제를 드러내어 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피해자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다.

결국 대학내의 성폭력은 여성의 교육권을 침해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대학에까지 그대로 반영되어 여대생들은 인격을 지닌 남학생과 동등한 학생이 아닌 열등한 여성일 뿐이다. 그래서 그녀들은 끊임없이 평가 절하되고 대상화 되어 종국에는 가장 침해한 여성 문제인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성폭력의 가해자의 역할을 담당해 보았거나 발생된 성폭력이 축소 은폐되는 것을 경험해온 남성들이 사회로 배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사회에서 강화되어 재생산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사회와 마찬가지로 대학을 지배 운영하는 것 또한 남성 가부장권력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으로부터 여성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성폭력이라는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

남성권력에 의해 소외된 위치와 피억압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한 여성들은 결국은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고 사적영역으로 유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많은 여학생들은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4.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논해보자.

가해자 남성들의 음란하고 다분히 불순한 시선에서 벗어나 이제 성폭력이라는 문제를 여성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 해야한다. 성폭력이 여성의 교육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피해자인 우리들은 어떠한 처벌과 예방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대 담론을 형성하여 우리의 잃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여 반여성적 법률과 남성지배이데올로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자치 규약을 제정하자.



자본주의가 가부장제를 만났을 때

1. INTRO

여성들의 화려한 사회진출이 보장될 것이라는 공보처의 TV광고를 한 번쯤은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제출된 정부의 2002년까지 실행하려는 여성정책에 대한 선전이리라. 또한 대선 후보들은 모두들 입을 모아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성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지지세력으로 인정되는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다고, 그만큼 여성권의 신장이 이룩되었다고 사람들은 뿌듯해한다. 90년대부터 활발히 이야기되었던 여성의 인권운동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 같아 흐뭇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란한 정책들 뒤에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 설명회의 자리를 떠야하는 현실이 있고, 경기 불황 속에서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는 가정'이라는 억지 주장에 못이겨 직장에서 쫓겨나는 여성노동자의 한숨이 있다.

얼마전 직장 내의 생리휴가가 폐지되었다. 97년 1월 노동법 개악 이후 여성들의 노동권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국외잡지(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한국은 아시아 제일의 성차별국'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 젊은 여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적나라하게 논평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상황을 외면한 채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발을 내

딛으면 된다는 허무한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사회활동을 시작한 후, 아니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누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겠는가!

2.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

언론들은 21세기를 정보화시대로 규정하면서 3F(Feminine, Film, Fashion)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떠들어댄다. 정부의 2002년까지의 여성정책이라든지 대선후보들이 차이없이 주장하는 여성공약들 또한 미래사회의 주역은 여성이며 감성, 섬세함, 수평적인 관계화보 등의 여성적인 (것으로 일컬어졌던) 특성들이 사회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현실화시켜주는 것만 같은 희망을 품게한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인 언어의 유포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자신이 딛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피상적인 언어의 나열을 넘어 현실을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찾기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위협의 근본을 가족 이데올로기(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결합하고 있는 자본의 움직임으로 설정하여 고민을 시작해보자.

2-1. 자본주의 구조하에서 산업예비군으로서의 여성- 유동적인 여성노동의 현실

자본주의 사회는 일터와 가정, 임노동과 가사노동, 공/사의 구분을 토대로 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내의 상품생산을 주로 하는 사회적 영역과 생산에서 격리되어 있는 가정 영역의 이분화는 성별노동분업과 함께性に 대한 다른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근대적인 우열과 열등의 이분법의 논리와 결합되어 공적영역=남성=생계부양이라는 등식과 사적영역=여성=가정이라는 등식을 확립시켰다. 이렇듯 여성을 가정에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도 자본주의 내에서는 부수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 결국 여성노동은 미숙련, 저임금의 직

종으로 주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임금의 개념으로도 나타나는 데, 자본주의 하에서 임금은 가족임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족임금이란 남성에게 생계부양자의 역할로 부여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족임금은 가정의 수호자(?)의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써 결국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정당하게 만든다. 또한 부양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혜자격에서 (남성에 의해 부양된다고 여겨지는) 아동과 기혼여성은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자본의 대공황의 시기에는 일차적으로 해고와 고용불안의 대상은 여성이 되며, 호황의 시기에는 여성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산업예비군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여성을 가정의 수호자로 묶어두어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산업예비

군으로서 유동적인 여성의 노동은 단순, 저임금 직종에 국한되어 진다.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거의 반정도에 불과한 임금차별, 미숙련과 임금이 낮은 부문에 여성노동의 수요가 집중되는 직종의 성별분리, 정년과 승급, 승진 등에 대한 차별 등, 성차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속에서 여성은 사회 속에



서 '낮은 목소리'로만 존재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이면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중적인 억압-계급적 억압과 성적 억압-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하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대립구조 속에서 여성은 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양육그녀들의 몫으로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재생산인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가사노동은 다음날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며, 출산과 양육은 사회유지를 위한 재생산이다-의 책임은 사회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회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사회적인 책임이며 가정(종국에는 여성에게 부과될)의 몫으로 돌려져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내는 허상(상징)에 의해 어떠한 부당한 여성 노동권에 대한 억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2-2. 신자유주의에서의 여성 노동권에 대한 위협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본주의 하에서 대다수의 여성은 미숙련, 저임금 직종에 속하여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의 활동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구성되는 노동구조 변화의 타겟은 이러한 미숙련, 저임금의 직종이다. 70년 이래 경기불황의 과정에서 자본의 유연한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작업조직 및 생산관리방식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고용구조의 변화가 점차 비정규화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임시직, 시간제, 하청용역 등의 다

양한 유연적 고용관계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이런 전략의 주요 도입동기는 자본이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임노동관계나 고용 형태를 통한 비용절감에 있다. 이러한 유연적 고용관계에서 그 대상은 저숙련 노동자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여성노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사양산업과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비정규직 노동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해소한다는 방향하에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인력 부족문제해결을 위해 주부, 장애인 등의 유휴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 산업인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고용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적극 지원을, 기업은 시간제 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은 아예 여성인력의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아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신자유주의하에서 여성 대부분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고용되기 때문에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 임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에 놓이게 되고, 비정규직 조건으로 인해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단결의 힘을 갖기도 힘들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선진국처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에 더하여 모든 문제를 가족단위로 해결해야 한다는 가족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 여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3. 성적 차이에 기반한 평등의 전략- 여성의 노동권 확보

어릴 적에 한 번쯤 들었던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땅위에서 벌어지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그런데 만

약 이 경주가 바다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에서 강한 거북이와 육지에서 잘 달리는 토끼. 이들의 차이는 무시된 채 전개되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남성을 기준으로 짜여진 세상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무시되는(이는 남성 중심의 시각으로 구성된 여성의 특성-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소극적이고 가정의 수호자로 적당하고 등등-에 의해 억압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노동권, 심지어는 여성의 특성조차도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에 따른 성적 차이이며, 이에 기반한 여성의 노동권 확보이다.

성적 차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보면 절대 약자인(물론 이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발상이다)여성의 입장을 존중해서 사회모두가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착될 위험에 대한 우려를 동반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보아야 한다. 여지껏 여성의

최현남시어 풍경 3.



언어로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차이가 논의된 적이 있었던가! 이전의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의 같음(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을 추구하였으나 요즘에는 여성과 남성의 다름(차이)에 기반한 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의식이 변화하게 된 이유는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의 이념은 남성성이 기준으로 되어 있기에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을 주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남성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 대한 합의가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여전히 남성적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애긴데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여성이 지향해야 할 평등은 결국 남성과 같아짐으로써 이루어지는 평등이 되어버린다. 만약 평등의 기준이 이렇듯 남성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여부에 달려 있고 남녀의 평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이라면, 즉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성별에 대한 말살이지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등은 아닐 것이다. 결국 동일성에 기초한 평등은 남성우월주의를 배후에 숨기고 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인 차이에 더하여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구성의 기준은 남성중심주의 논리에 따르고 있고, 여성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구성되어진 것은 한번도 없었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성적 차이란 형태론적이든 생물학적으로든 관계적이든 남녀의 서로 다른 몸의

차이에 주된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결코 생물학적인 차이의 과대평가가 아니며 생물학주의에서 이야기 하는 자연으로의 회귀는 아니다. 남녀의 서로 다른 몸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부정적이고 비하적인 여성의 정체성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임을 긍정하는 정체성이 형성되었을 때 진정한 성적 차이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여성해방인 것이다. 육지나 바다만에서 벌어지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아니라 육지와 바다가 적절히 어울리는 곳에서의 경주가 올바른 경주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 차이에 기반하는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주장한다.

너는 지금이 몇 신데, 이제야 집에 들어오는 거야?
늘 술먹고 늦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난 나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구요...
여자애가 단정치 못하게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난 이게 편한데, 나는 왜 내 마음대로 걸으면 안돼?
저녁먹은 거 설거지 좀 해라.
왜 나만 늘 설거지해야 해? 딸이니가? 한번도 오빠한테 그런 거 시킨 적 없잖아.
여자애가 무슨 담배냐? 되바라진 애들이나 하는거지.
담배는 그냥 기호식품일 뿐이에요. 요즘 담배피는 애들은 더 이상 특이한 애들이 아니라고요.

긴긴 불만의 터널 끝에 남겨진 어머니와의 한판 승부 결과는 언제나 화해의 온화함보다
"내가 너무 잘 난 딸을 뒀구나..." 섭섭함에 돌아앉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거나
'엄마는 케케묵은 엄마적 잣대로 왜 자꾸 나를 가두려는 거야.'
그렇게 속 시원히 내뱉지도 못하고 붉어진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는

나, 딸의 모습이거나 둘 중의 하나였다.
문득, 그래도 그 오래전에는 내 어머니인들 왜 지금의 나와 같은 이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언어를 소유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세상이 딸년으로 살기에 만만치 않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딸은 온실의 화초로 곱게만 키우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곱기만 한 딸, 종속적인 인간이고 싶지 않을 뿐.

앞으로 세상을 살 나 다음의 딸들에게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기를 바랄 뿐. 여성으로서 긍정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것은 당신께 물려받은 것은 아니기에

나는 마음 속으로 당신께 솔직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반문했고,

선불리 당신을 나의 동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그래서 아직도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말할 용기가 없지만,

끝까지 여성일 수밖에 없는 내 어머니와의 화해와 이해를 위하여

나는 열어들 수 있다. 내 심장의 한 자리를.

여성주의 공동체가 상상이라구?

우 여성 주의 공동체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 주의란 결코 억한 감정으로 선불리 외치는 분리 주의가 아니다. 그렇게 따져 묻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보자. 현실에서 여성들은 서로 서로를 온전하게 만나고 있는가? 여성과 여성의 사이들을 가로 지르며 서로 질시, 반목, 비하시키게 하는 이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장치들을 대자면 한도 끝도 없다. 사랑보다 우선시되는 여자들의 우정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악의나 질투심 없이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는가? 늙어가는 여인은 왜 언제나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느끼며 증오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같은 종류의 인간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야 하는가? 여성과 여성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한다. 경쟁자의 경계에 찬 눈을 버리고 서로의 동일한 분노와 동일한 슬픔과 동일한 감수성을 확인해야 한다.

우 남녀평등, 인간해방???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조화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성은 아직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다.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짜증들은 다만 나의 성격이 온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며, 좀더 참고, 좀더 착하게 살기를 결심할 뿐이다. "술자리에서, 과방에서, 버스 안에서, 사무실에서 그들의 농담과 음탕한 손길에는 좀더 센스 있게 받아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의과대에서 200여명중 10등 안에 들어도 내가 원하는 과로 갈 수 없다면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결국 나의 진가를 알리는 수밖에. 애인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의사소통의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건 내가 그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지. 어머니를 보면 느껴지는 답답함은 단지 나와 우리 엄마간의 문제에 불과해." 우리는 우리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중에 여성이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아야 하고, 우리의 불편함이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로 인한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의 분노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해야한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생활하며

획득해 나갈 수 있는 정체성이다. 여성이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있을 때에만 남성들과의 온전한 조화 지점과 연대 지점을 찾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가 규정하고, 의미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남학우들은 여학우끼리만 M.T를 가거나 술자리를 갖는다고 "지금 편가르기 하는 거냐고" 따져 묻거나 힐난하지 말지이다. 어차피 말해지지 않는지만 남자들만의 모임들, 여자는 한 두명 분위기를 위해 끼워줄 뿐인 농구 모임, 술자리, 당구장, 바둑 모임 등 사실상의 남자들끼리의 모임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우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서로의 여성성을 긍정하고 여성들간의 자매애와 연대의 고리르 확인 하고 서로에게 심적인 지지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들꽃 모임'은 모였다. 1996년 '피어라 들꽃'이라는 카페에서, 여성주의 공간을 선포하며 '들꽃'이 탄생하였다. '들꽃'이 결성되게 된 직접적인 동인은 그 해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고대의 집단 난동이었다. 제 1 대 이화 여성위원회가 이 문제를 집단적인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담론화에 나섰으며, 이 문제는 비단 이대와 고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내 전반에 만연해있고 은폐되어있는 성폭력 문제와 맞닿아있다고 고민이 확장되어 갔다. 이에 제 일의 목표를 고대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둔 '소진지 회의'가 열렸고, 이 '소진지 회의'의 결과 내용이 확장되어 '들꽃'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96년은 이러한 급진적(?) 여성주의 단체인 '들꽃'이 들 수 있을만한 상황이 제공된 해였다. 1995년 연세대 성정치국이 연 '성정치 문화제'의 반향으로 대표되는 성정치 담론의 활성화는 새로운 급진 정치운동으로서의 '성'이라는 전선의 가능성을 일군의 운동가에게 보여주어 성정치위원회 등의 조직체가 건설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여성에 좀더 방점을 찍은 전면적인 여성운동의 맹아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된다. 서울의 각 대학에서 이러한 움직임으로 결성된 조직체들은 96년 '나뻘모임'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모색과 새로운 전망의 공유를 통해 팽창된 문제의식은 1996년 '들꽃'이라는 전면적인 여성주의의 결계를 치기에 이른 것이다.

우 들꽃의 족적들

들꽃을 함께 시작한 학단위는 연세대 성정치위원회, 서강대 성정치위원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서울여대 여성학회 '날개달기' 등이었다. 들꽃은 들꽃의 공간을 여성주의적 공간화하기 위해 몇가지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수다라는 말하기법을 발굴하여 새로이 가치를 매기고 우리의 말하기 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이주의 철폐를 위해 반말쓰기를 일상화 하였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부여받은 아버지의 성과 이름을 반대하여 새로운 자신의 이름을 짓고 사용하였다.

들꽃은 진보적 공간이라고 여겨져왔던 대학에 성폭력이라는 문제제기를 하기위해 결성되었으나 여성주의적 문화창출과 여성적 연대 모색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실험을 가속화하였다. 그 실험은 여성과 락, 그리고 주제가 있는 수다 모임, 여성주의 캠프등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폭력이라는 궤를 놓친 것은 아니었다. 일련의 여성주의적 문화창출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여성주의적 마인드에 의해서 삼성맨 사건, MBC 성폭력 사건 등에 관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여성 연대 회의라는 좀더 본격적이고 전문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얘기하는 모임 또한 들꽃의 영감을 입은바가 크다.

우 ...여성성, 여성의 질서, 여성의 문화에 대한 실마리들...

지난 여름 서울 지역 대학의 100여명이 모여 들꽃 캠프를 성사시켰다. '(들꽃)지피기' 라는 캠프 준비팀의 준비 과정, 진행 과정을 통해, 위계적 질서와 권력을 배제한 수평적 질서와 다양성의 보장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 체험한 바 있고, 기존과 다른 방식, 다른 내용으로 사람들을 꾸리고, 행사를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흡족한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아직은 제대로 언어화할 수 없는 경험이다. disable이 아닌 differently able인 여성의 정체성, 여성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중이다. 상상력이 빈곤한 시대를 사는 것이 한스러울 뿐.



여성연대 호소문 1막 4장

#1.

영화 “안토니아스라인”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무게에 대해서 여성들 스스로의 욕망에 충실함으로써 응대하기에 낯설고도 유쾌한 공간이다.

욕망이란 불가피성이나 거부하기에 버거운 몸짓이 아니다.

욕망은 지양과 지향을 거친 고도의 결단이다.

안토니아스 계보의 딸들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풍요로움을 가장하게 만드는 일체를 거부하는 만큼 - 이것은 그녀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상징화 된다. - 그녀들은 재치있는 예술가들이다.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정상과 비정상 속에서 배우자를 지니지 않은 여성은 결핍과 부족함의 존재이며, 선택받지 못한 낙오자로서 비정상의 한 개가 된다. 즉 혼자인 여성은 소유되지 반면에 혼자인 남성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성은 남성이라는 권위적 주체의 도움 없이는 불필요함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녀들은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그냥 그렇다. - 있어도 배우자 남성을 통한 여성의 대리 성취나 지위의 격상같은 건 없다는 말이다.

기득권적 시선과는 거리가 먼 안토니아 가계의 공동체는 이러한 정상과 비정상, 우등과 열등, 지배와 피지배, 폭력과 무력함의 권력 관계의 허울을 제거하고, 개별화된 개인의 차이를 통해 각자의 온전함이 공존하는 장이다.

이제 마을에서는 모순적 엄숙주의로 상징화되는 목사는 사제복을 벗고, 열등하다고 마을에서 놀림받던 디디를 상습적으로 강간하던 친오빠는 추방당한다. 이중성의 가면을 벗게 하고 아무리 해도 안되면 내쫓자.

안토니아 가계의 모녀 관계는 나이에 의한 명령적 관계가 아니

라, 연륜이 인정되어 지지만 매순간 서로의 존재 자체의 중요성이 의미있는 상보적인 관계이다.

마린 고리스의 안토니아스 라인 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가진 여성들이 가부장제에서 살아가게 되는 선택과 대안의 제시인 것이다.

#2.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주위의 동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대학에 입문한 소위 우리 엘리트 여성들아 우리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한국에서 최초의 남녀공학이라는 연세대학교가 겨우 작년에 남녀공학 50주년을 맞았을 만큼, 대학은 남성화된 학문이 축적된 역사적 장이다. 남성화된 학문이라함은 학문은 불변의 진리로서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체계화된 논리라는 점에서 누구에 의해서, 혹은 누가 필요로하는가가 바로 학문의 주체이면서,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더욱이 명문대에 진학한 여학생은 권위의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는 버거움과 자격요건의 미달이라는 비난 속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학문의 언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면에, 여성들의 언어가 수다라고 일컬어 지면서 비논리적 신변잡기적 가벼운 발설로 치부되어 진다. 그리고 남성이 대다수이고 남성적 문화가 대학문화가 되든 대항문화가 되든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여학생은 얼치기 반병어리이다. 한마디로 스포츠가 어떻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적극성과 활동성을 지닌 긍정성으로 읽혀지지만, 그들에게 순정만화는 케케묵은 감상주의이다. 그리고 순정만화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도 다소 그게 맞다고 주먹거리곤 한다.

순간 여성은 소통의 불가능성을 경험함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은폐하고 과장해야 한다.

‘오아! 세상에 말이 안 통한다’

여성들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

그 공통분모는 어떤 다이어트 요법이 효과가 좋은지가 아니라 다이어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일 것이며, 공지영을 후일담소설이라 하며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지영의 소설 속에서 동화된 자아의 목소리를 느낄 때이다.

문제는 더 이상 남성화된 언어와 주제와 삶의 방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권위주의로서 일반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여성을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존재로 명명한 가부장적 질서는 여성들 사이의 반목과 질서를 조장한다. 더욱이 선택받지 않고서는 불완전한 여성들은 또 다른 불완전한 개체일 뿐인 여성들과의 연대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다.

누가 '여자들이 많으면 되는 일이 없다'라든가, '여자들 끼리는 아무 일도 안된다'고 말하려 하는가?

탄생과 동시에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망스러움부터 안겨주는 여성은 시공의 독단적 중심성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여성 스스로도 유일무이한 중심으로 존재하고 싶지 않다.

안토니아스는 그녀의 연륜과 선택에 있어서 존경받지만, 모두 안토니아처럼 살라고 강요되지는 않는다. 그녀는 무리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는 조정자인 것이다.

여기에 여성주의라 이름붙이는 관계의 질서가 있다.

강요에 의한 획일화와 가시적 결과가 아니라, 여성주의는 조언과 타인의 성숙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말의 주인을 찾는 것이다.

권위의 질서에 기대어 속만 머물러가는 개살구는 이제 땡이다.



#3.

150만년전으로 거슬러 가서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확장해가는 과정을 추정한 "인간의 시작"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초기 인류는 모계제 사회이며, 각 부족에는 무리를 이끄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여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은 데에는 여성이 채집생활을 담당함에 따라서 무리의 이동로에 해박하며, 여성의 출산이라는 경험은 여성이 자연의 이치를 잘 이해하게 된다는 신념에서이다. 부족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주관하는 모신-어머니신-을 받들어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어머니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이 지혜로운 여인 또한 지도자일 뿐, 지배자가 아니다.

왜 여성이 무리의 지도자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선대로부터 부족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고 난관에 부딪히면 심리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만 결코 홀로 완전하지 않으며, 다른 부족들로부터 의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간의 시작은 지금의 가부장제 질서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케 해준다. 그것은 모계제여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운영되어가는 방식에서의 다른 것이다. 타인에 대한 지배와 폭력과 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데 그 변별점이 있는 것이다.

#4.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의례성과 관례성을 넘어 총여학생회의 내용과 형식을 재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덕, 박언니, 주우엄마, 한흥대, 박모여인, 한수아줌마, 정언니.
전본에서 함께 하고 있는

실 대, 최언니, 손이엄마,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란? 세

영철이엄마, 조처대, 기언니, 한수아엄마, 영철대, 미세스 한.

한국 청년이 군대를 갔는데, 웬 낯선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가슴을 졸이며 뜯을산대.

어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더랍니다. 모여인, "사랑하는 내 아들이..."

모여인 컴퓨터 통신에 올라왔다는 이 이야기는 한국여성이 성은 고

사하고 이름조차 잊혀진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함, 유언

아이의 출생신고도, 이사 후 전입 신고도, 주부의 이름으로

는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 호주제의 현실입니다. 여성이 함흥대

자신의 이름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입적시킬 수 있는 경우는, 사생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 또는 아내의 호적에 남편이 입적하는 일부혼일

경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언니, 정엽이엄

남아 선호에 기인한 태아 성감별과 여아 낙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호주제뿐만이 아니라 성씨가 부계로 대물림되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운동이 성차별을

유도하는 호주제 폐지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

입니다. 진아줌

여러분,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껏 잊고 있었던 여러분 어머니들의

성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서 말해봅시다. 미세스

절반의 편, 여성의 성을 그녀의 자리로! 김언니, 혁이엄마, 부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사람들

정후보	김신	현경(정의 3)	-오늘
부후보	최전	승민(경영 4)	-이크
도움말	박최	명현(간호 2)	-틈틈
이끌말	이이	선민(아동 4)	-제나
	유강	지현(경영 3)	-물화
	최김	미나(인문 1)	-궁금
알림말	강김	지영(인문 1)	-자몽
	김조	후영(인문 1)	-아미
엮은말	이서	현옥(정의 2)	-다시
아울말	한천	지영(인문 2)	-이다
챙김말	이고	도원(영문 3)	-소심남
	이김	혜정(정의 3)	-하리
	장김	휘(정의 3)	-시루
	정최	한별(신방 1)	-얼우
	김서	상희(법학 2)	-레드
	장임	다혜(법학 2)	-장닭
	이이	정선(인문 2)	-따거
새모람	구조	소영(상경 1)	-아리
	장김	정미(상경 1)	
	윤김	소영(인문 2)	
	전최	주영(신방 1)	
	김임	은정(신방 1)	-이안
	김주	은희(법학 1)	-다릴이
	김	보미(법학 1)	-창랑이
	김	소진(간호 2)	-해야
	김	보경(정의 2)	

상징을 죽여라!

아, 시바알 셀러러맨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구

내 고통의 무슨도 쉬어야겠다구 여자로서 당당히 홀로 서기엔 참 더러운 땅이라구 이혼녀와 노처녀는 더 스트레스 받는 땅 직장 승진도 매우 고 버거운 땅

어떻게 연애나 하려는 놈들 손만 베풀가지처럼 건들거리지 그것도 한창 때의 얘기지

같이살 놈 아니면 연애는 소모전이라구 남자는 유박에 가서 툴이라도 툴수 있지 우리는 그걸 자처럼 달라붙는 정육을 터뜨릴 방법이 없지 이를 막물고 참아야 한눈피로같이냐 음막을 그물칠대로 살고 누원 젓가습이나 쓸어내리는= 설움이나 라식이나 수다로 툴며 소나무처럼 까치 해지는 얼굴이나

카무지간 여자직장을 사포내자구 시발

·신현림 / 비치는 시발을 아느냐/중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최승자 / 밀폐기 나는/중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구두가 사람 끌고 다니기 힘들 듯

때때로 여자노릇 힘들어

담담한 브래지어로 싸맨 젓가습으로부터

다달이 생리로부터

지켜야 할 온갖 정조로부터 날아가고 싶구나

익도하고 싶구나

·신현림 / 한라산 짐시/중에서

여성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다.

거울 보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너는 아냐.

그럼 누구?